

#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결	서 무	간 사	위원장
재			

등록금심의위원회 2차 회의		일 시	2018.1.2.(화) 14:00
		장 소	본부관 311호
참석위원	정승렬(위원장), 김태호, 이호선, 김인준, 이승헌, 김남균, 원윤성 (이상 7명)		
업무지원	간사 : 조 준 / 서무 : 안정민		
불참위원	없음		
의 제	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책정 관련 심의		

## ◎ 회의내용

### 1. 개회선언

#### ■ 위원장

- 재적 위원 7명 전원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2018학년도 2차 등록금 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함.
-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2018학년도 학부 외국인 학생 및 대학원 등록금 책정을 포함한 등록금 책정 심의를 안건으로 함.

### 2. 2018학년도 등록금 책정 심의

#### 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지난 회의에서 제출한 질의사항에 대한 학교 측 답변을 아직 받지 못함.

#### ■ 위원장

- 학부 외국인 학생 등록금 책정 관련 자료는 전달하였음. 그리고 질의사항 중 전임 학생 측 대표위원에게 제출하였던 자료들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항들을 파악하였

는지 질의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전임 학생 측 대표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이후에 갱신된 자료에 대한 요청을 드린 것임.
- 학부 외국인 등록금 책정 근거 자료는 먼저 인상을 전제하고 만든 자료로 보이며 인상, 인하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.
- 학교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학생 측에서도 검토 후에 결정할 수 있으므로 빠른 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예산 관련 자료는 2017년 추가경정예산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이며 이후 갱신된 것은 없음.
- 결산 관련 자료는 2016학년도 결산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이며 2017학년도 결산은 2018년 2월말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작업을 시작하여 2018년 4월경 자료를 볼 수 있음.
- 그 외 질의사항은 2018학년도 본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공할 자료로 보이며 학부 외국인 및 대학원 등록금 책정 관련 필요한 질의사항에 대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지난 회의에서 구두로 합의한 학생 측의 외부 전문가 위원 추천 건에 대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에 반영을 요청드립니다.
- 2019학년도 등심위 구성 시에도 외부 전문가 위원 추천 관련 논의가 반복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지난 회의에서 총학생회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하였음.
- 학생 측의 외부 전문가 위원 추천 행위가 등심위 차원에서 결정하여 제안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심위 규정에 명시하는 것은 맞지 않음.
-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근거 규정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되는 것인데 근거 규정 자체를 등심위 회의에서 개정할 수는 없으며 교무위원회 심의 등 규정 개정과 관련한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등심위에 참여하는 학생 측 대표 3인이 외부 전문가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므로

등심위 회의에서 위원들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- 규정 개정은 등심위의 요청 사항으로 대학본부 측에 전달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수월할 것으로 보임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은 외부 전문가 위원의 후보군을 확대하여 학생 측에서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총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.

■ 위원장

- 학생 측에서 외부 전문가 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적절한 방법에 대해 다음 회의에서 안을 제시하고 좀 더 논의하기로 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지난해 10월 교육부에서 진행한 입학금 실태조사에 우리 대학이 참여하였는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당시 전국적으로 상당수 대학이 참여하지 않았으며 우리 대학을 포함한 수도권的大部分 대학 또한 1차 자료 제출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였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학교 측에서는 교육부 권고 안에 따라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.
-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입학금의 상당 부분이 입학 관련 명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학생 측에서는 2018학년도에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임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입학금과 관련하여 2016년 교육부에서 해명한 보도자료를 보면 입학금은 입학 시기에 납부하는 등록금의 일부이며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등록금 수입으로 처리된 후 집행되기 때문에 입학식이나 입학 소요경비 등 특정 목적에만 지출해야하는 경비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음.
- 새 정부에서 입학금 제도를 개선하고자 사립대학들과 협의를 하여 교육부에서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것이므로 한 번에 전면 폐지하는 것은 무리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입학금 수입이 어떠한 명목에 지출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유무에 대해

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교육부 해명 내용과 같이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입학금을 별도 회계로 분리하지 않으며 수업료와 함께 등록금회계에 모두 포함하여 지출하고 있으므로 지출 내역을 따로 구분할 수 없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교육부 입학금 실태조사에 참여한 대학들은 입학금 지출 내역을 제출하였음.
- 지출 내역을 분리할 수 없는 입학금을 징수할 명분이 없으며 입학 관련 비용보다 대학 운영에 포함되어 지출하고 있는 것임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국립대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입학금 전면 폐지가 가능할 수 있으나 사립대의 경우에는 입학금 전면 폐지 시 대학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음. 이러한 상황에 교육부도 동의를 하고 사립대학과 협의하여 4년 또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것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재정적인 어려움을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으로만 충당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런 상황에서 학교법인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.
-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교육부의 권고안에 따라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임.
- 어느 단체에 가입할 때에는 입회비 명목으로 지불을 하는데 입학금 제도의 취지도 그러한 측면이 있음. 대학 졸업 후에도 학생들은 평생 우리 대학에서 제공하는 유·무형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입학금에는 그러한 비용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학교 측에서 입학금도 등록금의 일부라고 설명하였으므로 2018학년도 입학금 단계적 폐지와 관련한 사항도 등심위에서 논의가 가능한 것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수입 감소와 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하면 수업료 인상을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법인에서 수익 증대 방안을 제시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함.
- 외국인 등록금 인상 근거 자료에 언급된 등록금 수입 총당 규모도 법인에서 노력하면 보전할 수 있다고 봄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수년간의 학부 등록금 동결 상황에서 예산 긴축 운영을 통해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.
-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보다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안을 수립해야 하는데 부족한 재정은 법인을 통해 충당해야한다고 주장하면 논의를 진행하기 어려움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학교 법인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등심위 회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며 학생들이 체감하는 부담에 비해 법인은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은 것임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큰 것은 이해하나 교육비 환원율이 160%에 이르므로 실제로는 지불한 등록금보다 많이 돌려받는 상황이며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포함하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장학 혜택을 받고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대학생의 한 달 평균 생활비가 100만원을 넘어섰으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기도 힘든 상황에서 등록금까지 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.
- 소득 10분위 학생조차도 힘들게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.
- 법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입학금 폐지에 따르는 수입 보전 방안을 모색해야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최상위 소득계층인 10분위도 등록금이 부담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이 수익을 증대시키기는 쉽지 않음.
- 현실적으로 법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인정하고 대안을 모색해야함.
- 입학금을 전면 폐지할 경우 투자 감소와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며 그 피해는 현재 재학생뿐 아니라 미래에 우리 대학에서 공부할 후배들에게 전가될 수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학부 외국인 등록금 인상 근거 자료를 보면 수입이 증가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은 없음. 지출 증가만 강조하고 수입 증대 방안은 빠져있는 자료로 보임.
- 전체 학교 차원에서 등록금 외의 다른 수입원을 통해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은 없는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평생교육원, 국제교육원 등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으나 대학 공간의 포화 상태 등을 감안할 때 전년 대비 수익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임.
-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등록금 외 추가 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를 가정한 것이며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 등은 전년 대비 새롭게 발생한 변수이므로 이를 언급한 것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입학금을 5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도 당장 신입생들이 부담하는 입학금은 적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입학금 전면 폐지 또는 30% 이상 감축이 바람직함.
-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여 더 논의하겠음.
- 지난 회의에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요청한 자료의 상당수가 전임 학생 측 대표에게 이미 제공했던 자료이며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임.

■ 위원장

- 차기 회의에서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책정 관련 학생 대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학교 측에서도 의견을 제시하기로 함.
- 요청 자료와 관련해서는 학생 측에서 이미 획득한 자료나 대학 정보공시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 외에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예산평가팀을 통해 직접 문의하는 것으로 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학교 측에서 작성한 자료에 보면 교사 확충 관련 비용이 있는데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교사 확충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교사 확충 관련 현재 추가 진행 사항은 없음. 2018학년도 본 예산 책정 시에는 공간 확충 방안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임.

3. 폐회선언

- 차기 회의는 2018.1.8.(월)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정하고, 폐회를 선언함. 끝.

2018. 1. 2.

국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